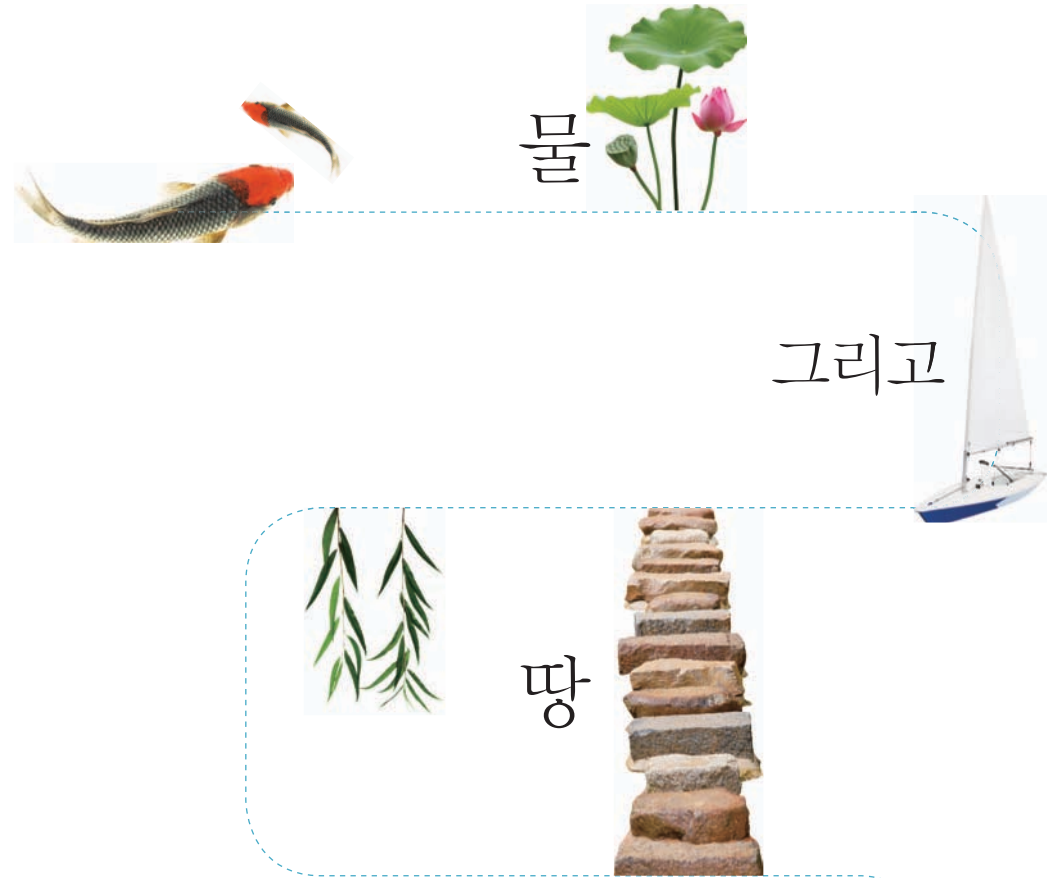


땅과 사람들

지구 위 바다로, 빙하로 그리고 육지의 하천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로 존재하는 물은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지만 물이 있어야 생존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흐르는 물은 땅이라는 그릇을 만나 비로소 다양한 얼굴로 비춥니다. 7월, <땅과 사람들>은 물과 땅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이 방울방울 맺은 이야기들을 엮습니다.



물

그리고



땅



Special Theme 01
우리 땅 탐구생활
물 그리고 땅, 그 오묘한 동거

Special Theme 02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현실세계 파고든 가상현실



국토24시

88:88

초여름 강변

느긋하게 어우러진
물과 땅의 음악실

이른 더위가 도착한 강 위로 한낮의 고요가 흐릅니다.
여름 강물 위에는 푸른 잔물결이 가득합니다.
도심을 오가던 자동차들마저도 한숨 돌리는 시각,
내리쬐는 햇살에도 유유했던 강물이 느긋한 매력을 드러내는 시각,
오후 2시. 너른 강 위에 오선지 굵듯 놓인 다리 위로
색색의 음표들이 “부웅~” “부릉” 소리를 높입니다.
한낮, 국토를 채우는 또 하나의 음악입니다.



Contents



〈땅과 사람들〉은
우리 땅을 탐구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누가 채우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국토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2017. 07. vol. 162

땅과 사람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외보 〈땅과 사람들〉
2017년 7월호(제162호)
발행인 겸 편집인 박명식
발행처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전화 063-906-5108
팩스 063-906-5119
홈페이지 www.lx.or.kr
기획·제작 ㈜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외부 필자의 원고는
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tro

국토24시

02 오후 2시, 느긋하게 어우러진 물과 땅의 음악실
초여름 강변

Special Theme 01

우리 땅 탐구생활

- 06 물 그리고 땅, 그 오묘한 동거
- 08 워터 소물리에 김하늘의 물 이야기
- 12 물 만난 풍경
- 18 물 그리고 땅에 대한 넓고 얇은 지식 상자
- 20 대한민국 하천 인포그래픽
- 22 물 위에 쌓인 삶의 역사, 하중도
- 26 이색 하천 트렌드
- 28 배산임수, 공존의 미학 _ 김두규 교수

Leader eXpert

- 32 좌표인터뷰
에어비앤비 미디어총괄 · 작가 음성원
- 36 LX스타트업
역사문화 플랫폼 개발 업체 '유와인'
- 40 내일로 미래로
한국수자원공사

Land eXplore

- 46 이슈추적
운전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
자율주행자동차
- 50 지도를 바꾼 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
- 56 공간의 재발견
폐광의 놀라운 변신
- 60 지도 따라가는 길
항동 철길과 푸른 수목원

Special Theme 02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 66 현실세계 파고든 가상현실
- 70 영화를 통해 보는 가상현실

Life eXciting

- 72 공간을 채우는 음악
휴가를 준비하며 듣는 음악들
- 74 우리 동네는 온에어
드라마 〈쌈, 마이웨이〉와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 76 공간아 놀자
래프팅
- 78 해피 투게더
물과 함께 빛과 함께 7월을 즐긴다
- 80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
험난한 물살 같은 세상을
버터 줄 곳? 다리 _ 박경석 해비타트 지문 · 운영위원
- 84 LX NEWS
- 88 독자와 함께

Outro

- 91 유연함을 배우다
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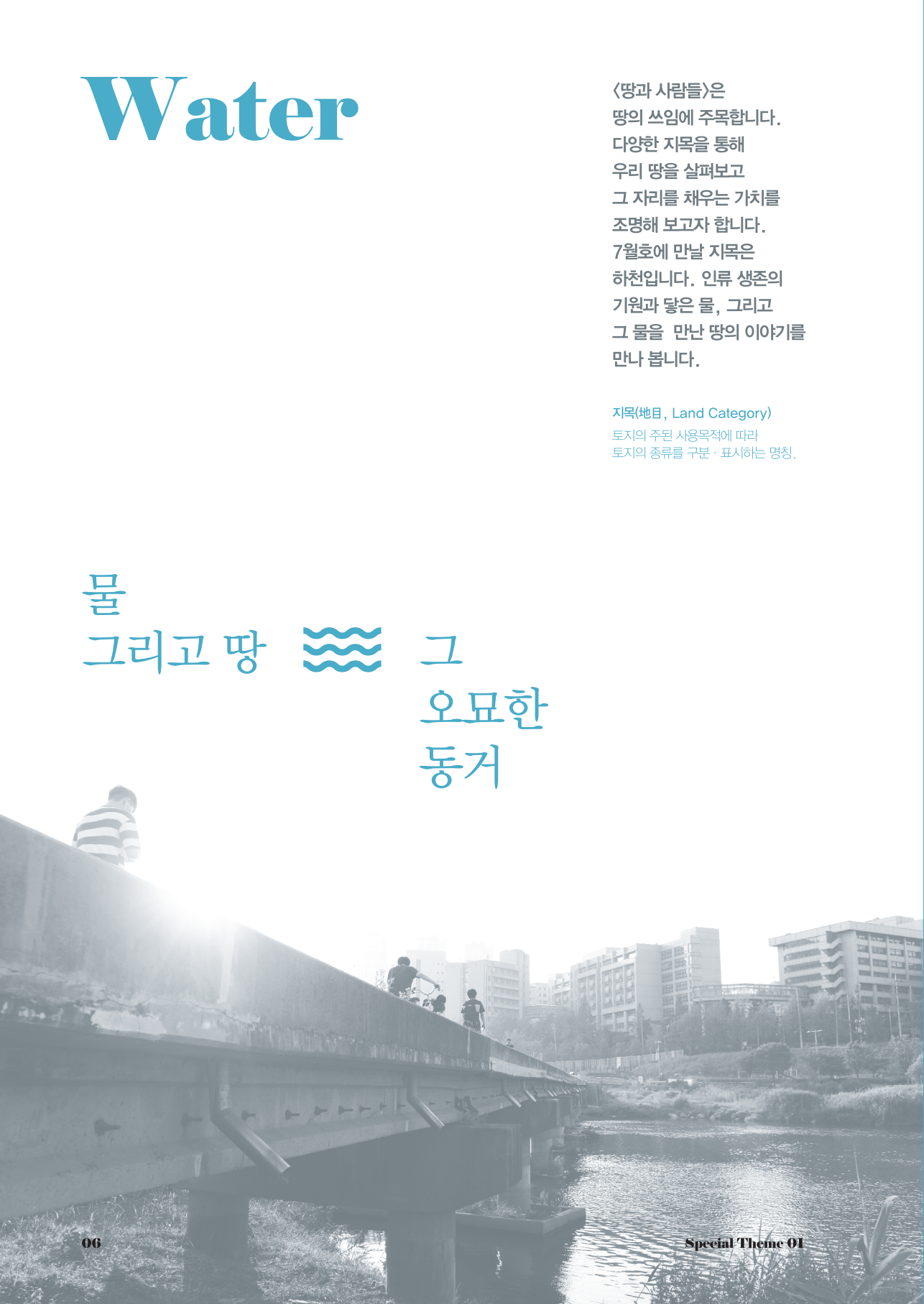
※ 〈땅과 사람들〉은 친환경종이와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Water

〈땅과 사람들〉은
 땅의 쓰임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지목을 통해
 우리 땅을 살펴보고
 그 자리를 채우는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7월호에 만날 지목은
 하천입니다. 인류 생존의
 기원과 닿은 물, 그리고
 그 물을 만난 땅의 이야기를
 만나 봅니다.

지목(地目, Land Category)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물 그리고 땅 그 오묘한 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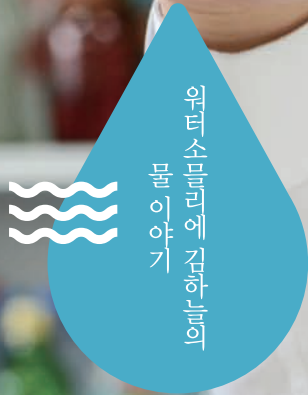
and Land

지구 표면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75%가 수분입니다. 원시의 지구, 인류의 근원은
 물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유프라테스, 나일
 그리고 양자강까지, 고대의 문명 발상지는 모두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구 위 바다로, 빙하로 그리고 육지의 하천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로
 존재하는 물은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지만, 물이 있어야
 생존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과 땅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곁을 흐르는 물은
 땅이라는 그릇을 만나 비로소 다양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릇을 따라 강으로,
 호수로, 저수지로, 연못으로 천변만화하는 물 위에 우리의 삶이 비칩니다.
 마시고, 씻고, 공장을 돌리고, 식물을 키우고, 마침내 그 안에서
 즐거운 생의 순간들이 고입니다. 7월, 〈땅과 사람들〉은 물과 땅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이 방울방울 맺은 이야기들을 엮습니다.

우리 땅 탐구생활

글/유제이
사진/봉재석

물은
사람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건강에 따라 혹은
그날 선택한
음식에 따라
필요한 물이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를 아는 사람,
물 전문가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를
만났다.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에는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워터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국가대표 워터 소믈리에로
활약 중이며 물 전문가로서 물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Water is not just water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1년에 3m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수원지 보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절한 물을 찾아드립니다

워터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는 알겠는데 워터 소믈리에'는 뭐지?' 가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와인 소믈리에가 레스토랑 등에서 고객들에게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고, 서빙과 관리를 하는 사람인 것과 비슷하다. 음식에 어울리는 물을 추천하는 직업이다. 거기에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물을 추천해 주는 것이 다르다. 와인과 다르게 물은 언제고 마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 직업의 이름조차 생소한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 씨는 어떻게 워터 소믈리에가 되었을까?

“아버님이 음료유통업에 종사하셔서 어릴 때부터 음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는 외식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고재윤 교수님의 음료학 수업을 들으면서 물을 학문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당시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커다란 마트 벽면 하나가 다 생수였어요. 예닐곱 개의 냉장고에서 생수만 진열되어 있는 걸 본 것이 물의 미래와 시장성에 주목하게 된 계 계기였죠.”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를 인터뷰한 날은 그가 '제5회 광저우 워터 엑스포'에 참가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워터 시장, 우리나라 워터 소믈리에의 역사와 챔피언십에 대해 설명했다. 박람회야 열릴 정도로 커져 있는 물 시장의 규모만큼 광저우 워터 엑스포의 규모 또한 대단했다는 것이 그의 전언. 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그만큼 성장세라는 얘기가.

“Water is not just water”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물마다 특징이 있고, 귀천이 있으며, 성분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한 병에 1,000원도 하지 않는 생수도 있는 반면 6만 원을 호가하는 생수도 있다. 하지만 비싼 물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어울리는 물이 있어요. 몸에 따라 맞는 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몸에 칼슘이 부족한 분은 칼슘 함량이 많은 물이 좋은 것처럼요. 물은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 전문가들이 “Water is not just water”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물맛 평가를 위해 평소 커피나 담배도 하지 않는다. 맛으로 세계의 다양한 생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하 대수층에서 파이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생수를 만듭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

상도의 물이 같은 대수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륙의 물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외국은 빙하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바위를 뚫고 나오는 물도 있어서 물의 성분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맛의 차이도 큰 편이죠.”

물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세워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수원지 보호에도 민감하다. 지하수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토양이나 수원지가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을 생각하면서 땅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다.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1년에 3m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대수층까지 오염물질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원지 보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수원지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 “일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미네랄이 충분하고 천연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들어 있는 물이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물을 찾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물이겠지요.”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전하는 팁은 생수를 살 때 '내추럴 미네랄 워터(Natural Mineral Water)'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그냥 '미네랄 워터(Mineral Water)'라고 표기된 것은 인공적으로 미네랄을 주입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브랜드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국내 생산 제품이라면 같은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 내기 때문에 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물인 경우가 많다.

“물은 같지만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물은 수원지가 중요하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런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는 물이 곧 나, 사람이라고 믿는다. 인체의 대부분은 수분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사람은 죽는다. 우리가 먹는 것을 음식(飮食)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마시는 것, 음(飮)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여름이 되면 마시는 물도 늘어난다. 긴 시간,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올 여름은 시원한 음료를 찾을 때 다른 음료 대신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하늘 씨는 물에 대해 강의나 발표를 할 때 늘 이런 멘트로 끝을 맺는다고 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물 마실 시간입니다.”



물을 따라 펼쳐진 풍경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천이 내어 준 길을 따라
사람들은 걷고 이야기하고
생활을 이어 갑니다.
물이 품은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찰랑대는 물결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물 만난 이야기가 흐릅니다.



물 만남

풍경



우리나라 땅 위를 흐르는
하천의 개수는 5,622개에 달한다.
총 연장 25,111,685m에
이르는 길을 따라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은 제방을 만나고
다리를 만나며 잠시 멈추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시간이 그러하듯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도심을, 지방을 흐르고 또 흘러
서로 만나는 물 위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울방울 모인다.
반짝이는 물빛 위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빛난다. 여름을 맞은 물가가
유독 아름다운 것은 이 계절을 환영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동심

성큼 다가온 여름, 물 위에 놓인 징검다리는
아이들에게 열린 또 하나의 놀이터다. 경중경중 걸다가 잠시 앉아
내려다본 물속으로 여름빛 가득한 동심의 한때가 비친다.



가족 나들이

여름 물길을 따라 주말의 망중한을 즐기는 것은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고운 햇빛의 잉어들도 맑은 물속에서 정다운
나들이를 즐긴다. 물빛을 따라 반짝이는 가족의 한때.



동행

지는 해를 잔뜩 품어 반짝이는 물빛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또 다른 동반자. 물 위로 흐르는 하루의 이야기가
다리 위를 구르는 자전거를 따라 천천히 감긴다.



순리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을 일컬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다시 돌아가는 곳. 찰랑이는 물결 위로 일렁이는 삶의
그림자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대지를 흐르는 혈관, 하천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총 6,622개. 그중 국가하천은 130개이고, 지방하천은 2,145개다. 총 연장은 25,111,685m에 달한다. 한반도 해안선의 총 길이가 8,593,000m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긴지 조금은 감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빗물



우리 생활 가까이 자리한 물에는 빗물도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인 800mm보다 훨씬 많은 1,200mm. 국토면적 인구 대비 1인당 연간 2,700t이나 된다. 그러나 그중 이용 가능 수량은 1,400t으로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 기준인 1,700t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치수대책과 친수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땅속에서 올라온다, 지하수



산속 웅달샘 약수만 지하수가 아니다. 농업용으로, 농업용으로 그리고 생활용으로 지하수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2015년 한 해 사용된 지하수의 양은 총 4,093,738,197㎥. 2014년 기준으로 156만 관정이 설치돼 있다. 지하수 시설수와 이용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용처는 전체의 50.7%를 차지한 농업용수이다.

가정을 움직이는 물, 수도물



가장 대표적인 생활용수 수도물. 우리는 하루에 수도물을 얼마나 쓸까? 2014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수 기준으로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178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8.7원. 사용 목적별로 보면 가장 많은 물을 쓰는 것은 변기, 그 다음이 음식 준비, 빨래, 목욕·샤워 순이었다.

공장을 돌리는 물, 공업용수



물은 일상생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도 물은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의 공업용 수도시설은 울산(2), 포항, 창원, 광양(3), 거제, 군산, 대불, 아산(2), 구미까지 총 13개소에 설치돼 있다. 시설용량은 1일 3,694t. 각각 낙동강과 영천댐, 주암조절지댐, 수어댐, 구천댐, 연초댐, 금강하구둑, 영산강하구둑, 아산호, 대청조절지댐 등을 수원지로 하고 있다.

물을 보관하는 벽, 댐



댐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세운 인공 구조물이다. 이용 목적에 따라 홍수전용댐, 발전용댐, 다목적댐 등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댐의 총 개수는 573개에 이른다. 옛 사람들이 흙이나 돌로 둑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콘크리트와 시멘트, 철근으로 댐을 짓는다. 더 단단한 벽으로 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물이 있는 여가 공간, 수변공원



전국에 분포한 공원은 총 21,766개소로 총 면적은 934,242,136㎡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그중 물과 함께 어우러진 친수 여가 공간인 수변공원은 전국에 총 494개소가 분포한다. 최근 친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증가 추세다. 근처에 수변공원이 있다면 물과 함께 여가를 즐겨 보자.

인체의 본질? 소중한 체내 수분



인체의 3분의 2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 평균 2.4ℓ의 물이 땀, 소변, 대변, 호흡 등을 통해 빠져나간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 불쾌감, 운동능력 감소, 구토감, 무력감 등이 생길 수 있다. 물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체온조절능력이 상실되고, 정신집중에 장애를 느끼며 현기증, 혼돈, 근육경련을 지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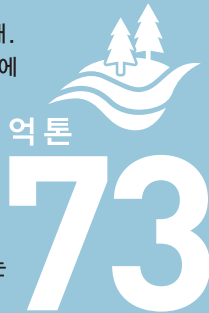
이수에서 치수로, 다시 친수로

물과 땅을 이해하다

대한민국 하천 인포그래픽

물에 대한 생각은 순차적으로 변화해 왔다. 당장 먹고 마실 물을 떠올리는 첫 단계가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은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생활을 위해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발전하여 홍수 등 재난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이르는 것이다. 재난을 예방하고 일어난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친수다. 물과 자주 접촉하거나 물에 익숙해지는 것을 친수라고 하는데, 물이 가진 정서적 효과 등이 주목받으면서 물과 땅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친수공원, 수변상가 등의 트렌드는 물과 땅, 인간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전국에 흩어져 존재하는 하천은 총 5,622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전국 하천에 자리한 587개의 취수장에서 약 73억 톤의 물이 취수되어 508개의 정수장에 공급됐다. 연간 먹는 물을 위해 공급되는 양이 73억 톤 규모라는 이야기이다. 취수된 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댐 저수로 3,404백만 톤에 달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하천을 표류하는 물. 연간 3,235백만 톤이 취수되었다.



573 개소 이수와 치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댐이다. 전국 댐의 개수는 573개소.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총 저수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478개소). 총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33개소), 발전용댐(21개소), 다목적댐(19개소), 지방상수도전용댐(18개소), 홍수전용댐(4개소)이 뒤를 잇는다. 댐이 가장 많이 세워진 지역은 전라남도 117개소이며, 경상북도가 100개소로 뒤를 이었다. 농경지와 공업단지가 많은 곳에 댐도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하천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동해와 서해 중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에 따라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태화강 수계와 형산강 수계 등으로 나뉘고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한강 수계, 삼교천·안성천 수계, 금강 수계, 동진강·만경강 수계, 영산강 수계 등으로 갈라진다. 또 하천법에 따라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도 나뉜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권역별로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전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하천은 2015년 현재 총 5,622개. 총 연장은 25,111,685m에 이른다. 곳곳의 하천에 573개소의 댐이 지어져 있고 33,848개소의 보 구조물이 존재한다.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댐과 보의 목적은 명확하다. 물을 이용해 식물을 가꾸고 공장을 돌리고 생활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하천의 물은 전기를 만들고 식음료의 원료가 되고 환경을 개선한다. 굳이 인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은 물을, 하천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천의 물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생활환경기준을 만족시켜야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환경기준은 수소이온농도,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 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인, 대장균 군수 등의 항목을 확인해 등급을 나눈다. 등급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의 7단계로 매겨지는데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www.koreawqi.go.kr)에 접속하면 전국 하천의 수질정보를 알 수 있다.

물 위에 쌓인 삶의 역사

하중도



물의 힘은 거대하다.
이 땅의 산하를
휘둘러 모양을
바꾸고, 없던 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세차게 흐르던
하천이 퇴적물을 강
한가운데에 쌓아서
형성되는 모랫등이
하중도, 강 위의
섬이다. 하중도는
인간 문명의
역사적 터전이자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이
만든
공간

- 1 자라섬에서는 매년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 2 한강에 띄운 인공섬 세빛둥둥섬
- 3 하중도는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생태공원이나 관광지로도 활용된다
- 4 강 위에 뜬 섬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시민들

물이 창조한 공간

강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높고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한다. 고인 물이 낮은 자리를 파고들어 흐르기 시작하면 땅은 겸허히 자리를 내준다.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치면 여울이 되고, 땅과 산을 깎으며 비옥한 충적토를 머금은 채로 달린다.

하중도는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구불구불 모퉁이를 돌며 잠시 숨을 돌리다가 그 퇴적물을 내려놓으면서 만들어진다. 때로는 역겹의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금세 사라졌다가 다시 쌓이기를 반복한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못하던 시절, 하중도는 물새가 잠시 앉았다 가는 쉼터였다. 물에서 날아온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 울창한 숲이 되었다. 습지나 모래톱처럼 하중도에 뿌리 내린 나무들은 수변부의 침식을 막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생태적 역할도 수행한다. 한강의 난지도는 원래 난꽃과 영지가 자라던 섬이었고, 서강대교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한강 밤섬이나 낙동강 하류의 을숙도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하중도가 품은 비옥한 충적토는 농경을 싹틔우고 취락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중

도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곳들은 마을이 들어서고 농경지가 되었다. 한강의 미사리와 강원도 춘천의 하중도에 남아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들은 그 역사를 말없이 증언한다.

옛날 옛적 하중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천이 범람하는 여름 수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자연제방 위에 마을을 만들었다. 벽골제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지금도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포교리에서 월성리에 이르기까지 제방이 남아 있다. 벽골제 북쪽 원평천 중앙에 위치한 하중도에는 '신털미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산이 있는데, 벽골제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이 짐신에 묻은 흙을 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부산 강서구의 드넓은 삼각주 평야도 낙동강 하류가 만든 거대한 하중도이다. 이곳에서 나는 채소

와 과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독특한 맛을 내기로 유명하다.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역시 밀양강이 만든 3km² 남짓의 작은 하중도이다. 삼문동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수목이 우거진 숲이었고 사질토가 많아 밤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오늘날 밀양이 확장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된 삼문동에는 높이 솟은 세련된 건축물과 허름하고 낮은 가옥이 섬 안에 공존한다.

청보리밭 결혼식부터 록페스티벌까지

하중도는 수변을 따라 물역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생태공원과 관광지로 꾸며지기도 한다.

북한강 줄기를 잠시 벗어나 청평에서부터 가평까지 이어지는 개천을 따라 달리다 보면 자라섬을 만나게 된다. 비가 내리면 북한강의 물이 불어 섬이 약간 잠기었다가 자라등처럼 모습을 다시 드러내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평군청에서 운영하는 자라섬 캠핑장에서는 매년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섬 전체가 다양한 공연장으로 조성되며, 코스모스 군락지와 해바라기·유채꽃·갈대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국내외 정상급 재즈 음악가들이 공연을 펼친다.

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변에 위치한 하중도는 대구의 대표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봄에는 유채꽃과 보리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지난해부터 대구시가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면서 동화 같은 예식장으로 거듭났다. 황금빛으로 넘실거리는 청보리밭에서 선남선녀가 백년가약을 맺는 풍경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아름다운 장관이다.

시간이 쌓이고 역사를 만든다

한반도에 자리한 하중도 중에는 역사적·영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들이 많다. 압록강의 지류가 만들어낸 하중도인 위화도는 조선 왕조 개창의 계기가 된 '위화도 회군'의 역사적 현장이다. 문명이 첨단을 달리는 시대, 이제 하중도는 강의 유구한 시간만이 빛어 낼 수 있는 자연의 전유물이 아니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바다 밑으로 길을 내기 시작한 인간 문명은 이제 물 위에 섬을 띄우는 경지에 이르렀다. 한강 반포대교 남쪽에 떠 있는 세빛섬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인간 문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 하중도의 풍경도 문명과 함께 진화 중이다.

이색 하천 트렌드

글/이성주
사진/봉재석



도심을 관통하는 강은 자연 하천과는 또 다른 매력이다. 고층빌딩이 빼곡할수록, 사람이 붐비는 도시일수록 그 매력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특히 수변공원은 도시의 삭막함과 갑갑함을 덜어 주는 역할로 인기가 높다. 신도시를 구성하면서 수변공원은 빠지지 않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수로를 파고 그 길을 따라 건물을 짓는 수변상가까지 등장했다.

물이 만든 새로운 풍경

인공수로와 수변상가

물길을 따라 산책로, 쉼터 그리고 상권이 생겨난다



- 1 도심을 관통하는 인공수로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놓는다
- 2 수로를 따라 조성된 상가의 풍경이 이색적이다
- 3 밤이 되면 불빛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취마저 풍긴다

수로, 도시 속 쉼터가 되다

콘크리트 건물이 빼곡한 곳일수록 녹지는 소중하다. 특히 수변공원은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시 안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변공원은 도시 하천변이나 호수변 인근 공간을 활용한다. 하천을 비롯해 저수지, 댐, 바다처럼 기존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꾸민다. 서울의 한강시민공원부터 청계천, 호수공원, 해운대 바닷가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원이 우리 삶과 함께 한다.

반면 너무 많으니까 흔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아예 수변공원에 인공수로(Canal way)를 더해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

인공수로가 생기면 그 물길을 따라 산책로나 공원, 쉼터를 조성하고 더불어 상권도 형성된다. 수로를 따라 생긴 상가는 공원을 찾은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김포 신도시 커널시티, 그리고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커널웨이가 있다.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인공수로

청라국제도시 안에 조성된 인공수로는 2015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연장은 4km, 폭은 약 5~10m 내외이다. 수심은 1m 정도. 수로 한쪽은 청라국제도시를 굽어돌아 흐르는 심곡천과 맞닿았고, 반대쪽은 청라호수공원과 이어진다. 인공수로는 도시를 관통해 끈게 흐른다. 수로 양

옆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수로 중간에는 2인용 카누, 4인용 모터보트 같은 물놀이 시설을 빌려 주는 곳이 있다. 4인용 패밀리 보트는 30분 빌리는 데 3만 5,000원, 2인용 카누는 1시간에 2만 원 정도를 받는다.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 그렇지 50% 정도 할인한 값을 받았다. 보트는 조종이 어렵지 않아 어린 자녀와 함께 타는 가족을 쉽게 볼 수 있다.

해가 저물면 수로 양쪽에 밀집한 상업시설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불판이 달궈지고 고기가 올라가니 순식간에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찬다.

수로 끝에서 만나는 호수공원

길을 재촉해 대형 분양광고 현수막을 지나면 청라 호수공원이 나온다. 이곳에도 각종 수상 레저 장비 대여소를 갖췄다. 종류도 다양하다. 카누나 패밀리보트는 물론, 카약, 곤돌라, 수상택시까지 탈 수 있다. 상업시설을 가로지르는 수로에서 탈 수 없었던 자전거도 호수공원에서는 마음껏 탈 수 있다. 대여용 자전거의 종류도 2인승부터 6인승까지 다양하다.

청라호수공원은 약 5km 규모로 고즈넉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장소부터 물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국내 최대의 수변공간'이라고 자부할 법하다. 가족과 함께 색다른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한번쯤 찾아볼 만한 공간이다.

물 그리고 땅 그 오묘한 동거

글/김두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봉재석

배산임수 공존의 미학

背山 臨水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地勢)라는 뜻으로
풍수지리설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



좋은 땅이란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곳

왜 산수화를 그리며 또 그것을 집과 사무실에 걸어 두는 것일까? 산수화는 문자 그대로 산과 물이 그려진 그림이다. 일찍이 중국의 화가 종병(宗炳, 375~443)은 산수화란 “산수의 정신”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산수의 본질을 파악해 내는 것이 다른 아닌 풍수이다. 산수화와 풍수는 그 출발점이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중국의 산수화가 왕미(王微, 415~443)는 ‘전신론(傳神論)’을 주장한다. “산수화란 산수의 정신을 그려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명이 강림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하는 사람에게 그 신명이 전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산수화에는 산이 있고, 그 사이에 강이 있어야 한다. 길 없는 그림



풍수의 핵심 구성요소는 산과 물 두 가지이다

은 사람이 살지 않음을 말하기에 좋은 산수화가 아니다. 계곡에는 다리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나 말이 건너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한다. 강에는 배가 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물이 교류되어야 살 만한 곳이 된다.

그림 속에 그려진 산과 물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산과 물이 주는 영향이 더 큼을 말할 나위가 없다. 풍수의 핵심 구성요소는 산과 물 두 가지이다. 산이 없는 산수화, 그리고 물이 없는 산수화가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듯, 산 없이 물만 있는 땅과 물 없이 산만 있는 땅도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선조 풍수관리(지관) 선발 고시과목 ‘명산론’은 말한다. “풍수의 대략을 신체에 비유해서 말하면, 흙은 살이 되고, 돌은 뼈가 되고, 물은 피가 되고, 나무는 모발이 된다. 그러므로 혈(穴, 땅 기운이 뭉친 곳)을 이루는 곳에서는, 그곳의 흙은 풍성하고, 그곳의 돌은 이상한 것이 많고, 그곳의 물은 여러 곳에서 모여들고, 그곳의 나무는 무성하다.” 결국 좋은 땅이란 산과 물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이야기이다.

산, 물 그리고 땅은 살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산주인, 수주재(山主人, 水主財)”라는 풍수 격언이 생겨난다.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좋은 산은 좋은 인물을 만들고, 좋은 물은 풍성한 재물을 쌓게 한다. 전통적 취락 입지 조건으로 뒤로는 산을 등지로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성어가 생겨난 배경이다.

사람이 사는 집과 관련하여 땅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주택풍수 고전 <황제택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은 집을 의존하여 생존하며, 집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인간과 집은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
좋은 산은 좋은 인물을 만들고, 좋은 물은
풍성한 재물을 쌓게 한다.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성어가 생겨난 배경이다

서로 상호하는데, 천지간에 감응하여 통한다.” 어떤 곳에 터를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산을 중시하여 산촌에 살 것인가? 아니면 물을 중시하여 강가나 냇가에 살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면서 그 사이를 큰 강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3면이 바다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풍수 고전 <금낭경>은 “풍수의 법은 물을 얻음을 으뜸으로 삼고 바람을 갈무리함을 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산보다 물을 더 중시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18세기 우리나라 실학서 <택리지>가 답을 준다. “냇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비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까? 앞에서 소개한 풍수격언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 가능하다. 즉 강이나 비닷가에 거주하면 부자가 되며, 산속에 거주하게 되면 인간의 품성을 고양시

킨다는 뜻이다. 경제활동은 인간 삶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자연스럽게 산보다는 물을 중시하는 관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업보다 상업 활동을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배산임수보다는 배수면가(背水面街), 즉 뒤로는 큰 물이 있고 앞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 곳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풍수의 관점에서 산과 물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땅은 단순한 무생물체가 아닌 활물(活物)이다. 좋은 땅이 훌륭한 인물을 길러 낸은 당연하다. 일종의 ‘땅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옛사람이 <일편금(一片金)>이란 풍수서를 남겼다. 그는 이 책에서 산이 높고(山高) 물이 아름다워(水麗)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였고, 아침 해가(朝日) 곱고도 밝아(鮮明)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했다. 절묘한 표현이다.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우수 민족으로 거듭나려면 우리 산하를 아름답게 지켜야 할 일이다.

좌표 인터뷰

글/이성주
사진/봉재석

변화하는 도시를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 총괄
작가 음성원

탐구하다



어떤 질문은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어떤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도시? 지방? 아파트? 단독주택? 아니면 강변? 산기슭? 그도 아니면 고즈넉한 곳, 시끄러운 곳, 깨끗한 곳은 어떨까? ‘어떤 공간’이라는 말이 불러들일 수 있는 범주는 지나치게 다양하다. 나열한 몇 개의 단어로 대답한다 한들 질문은 또 남는다. 그것은 정답일까? 오답이라면 정답은 뭘까? 신문기자 출신으로 에어비앤비 미디어총괄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펴낸 작가 음성원의 궁금증도 여기에서 출발했다.



都

市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흐름을 읽는 단서
한겨레신문에서 일하던 2014년 서울시 당을 맡으면서 음성원은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보다 실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너무 거대한 도시였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므로, 그가 배워야 할 것들은 형언할 수 없이 많았다. 수많은 책과 담당 공무원의 가이드를 따라 음성원은 많은 것들을 익혔다. 그러나 때가 좋지 않았다. 하필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던 시절이었으므로 그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때 만난 화두가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과 ‘도시재생’이다.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익선동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까지. 이 지역의 공통분모는 도시재생이다. 최근 이른바 ‘핫 플레이스(뜨는 동네)’라 불리는 곳 대부분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세입자는 곧 다른 곳으로 떠밀려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저성장, 그리고 부동산 투자 대상의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저성장 과정에서 탈락한 중년들은 자영업으로 몰립니다. 이 수요는 건물 임대료를 올리고, 수요는 다시 저렴한 상가주택으로 몰립니다.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이 몰리면 임대료가 오릅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 처음 임대한 사람이 밀려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단지 막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죠.”

도시재생, 단순히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원주민은 건물이 낡아서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음성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한겨레신문 기자로 있으면서 경제, 도시, 건축 분야에 대해 취재했다. 2014년부터는 도시적 현상과 공간심리학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를 <도시의 재구성>에 담았다. 현재 그는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의 미디어 정책 총괄로 일하며 공유도시의 미래에 대해 연구 중이다.

사람들은 낡은 것 그대로가 좋다고 한다. 오래된 건물의 역사와 전통을 말한다. 그러나 거주자는 낡은 동네가 불편하기만 하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 도시재생이 등장한다. 물론 간단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도시재생은 단지 옛것이니 지키자거나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의하자면 용도가 다른 건물을 새로운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시 꾸미는 일입니다. 물론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나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생 건축이 새롭게 다시 짓는 것보다 60% 정도 저렴합니다.”

미적 감각의 변화도 따질 대목이다. 으리으리한 새 건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재생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시나브로 증가한다. 용도를 바꾼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 촌스럽다고 여겼던 건물과 골목이 새로운 상품으로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것이 일차적인 도시재생의 모습이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옛것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가진 세대가 신축이 아닌 재생을 부르는 것이다.



- 1 작가 음성원은 도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 2 집을 빌려 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다
- 3 빌리고 나누어 쓰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變

化

공유경제와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도시는 변화할 겁니다

探 究



《도시의 재구성》
이데아, 2017년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코-리빙, 테크놀로지를 테마로
가까운 미래에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전망한다.



소유에서 공유로, 도시가 달라진다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신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이고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탓에 소유보다는 공유를 지향한다. 국내에서도 이 시기에 태어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음성원은 이들의 흐름을 읽을 때 뜨는 동네와 도시재생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흔한 세대론을 말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트렌드는 도심 집중화 현상, 도시재생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멀리 있지 않다. 이들이 쏠린 흔적은 최근 서울에서 뜨고 진 동네들의 흔적과 거의 일치한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의 연남동이 뜨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곳에 집중된 건 20대 여성이었어요. 카드 사용 현황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 남성, 30대, 40대 순이에요.” 연남동 붐을

이끈 세대가 누구인지 알려 주는 이야기다. 음성원은 우리 사회가 이미 ‘밀레니얼화’하고 있다고 본다. 집을 빌려 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부터 자동차를 빌려 타는 카 셰어링 같은 서비스는 일찌감치 대중화했다. 이른바 접근권만 가지면 되는 세상이다. 그는 공유가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을 풀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도시재생은 시대나 필요에 공간적 수요에 맞춰 도시가 적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도시의 재구성 이죠. 그리고 이 변화에 맞춰 자본이 쏠리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에요. 함께 사는 코-리빙(Co-living)이나 공유경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풀어낼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공유경제와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도시는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도시 집중화,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 증가, 공유경제, 온·오프라인의 통합이 우리를 새로운 도시로 안내할 겁니다.”

역사라고 하면 흔히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왕과 신하, 혁명과 민란 같은 것들. 아니면 박물관에 남은 어떤 흔적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빗살무늬 토기와 금관, 오래된 의복과 신발들. 그러나 오늘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도 역사는 존재한다. 굳이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역사를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지난해 LX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유와인'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역사와

공간정보가

만나

지역경제를

살린다

LX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
역사문화 플랫폼 개발 업체
'유와인'

유와인은 굳이 역사책을 펼치지 않아도 공간의 역사를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플랫폼을 구동하면 광화문의 곳곳에 새겨진 이야기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꿈

일당백 아이디어로 성장하는 1인 기업

‘유와인’은 1인 기업이다. 대표도 직원도 딱 한 명 뿐이다. 아직 예비창업 단계라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표이자 직원인 이영찬 씨는 올해 스물일곱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사장님’ 소리를 듣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 그러나 얼마 전 중견 기업으로부터 부사장 자리를 제의받았을 정도로 실력이 탄탄하다. 지금까지 공모전에 나가 수상한 것만 16회. 상패를 늘어놓으면 벽 한쪽이 꽉 차 보일 정도다. “목표를 세우면 꼭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작년에 지도교수님이 교내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플러스(+)를 붙여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목표는 평점 4.5였거든요. 교내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처음 나간 대회였는데 장려상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첫 시도에 수상을 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진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게 기뻐다. 10만 원의 상금을 손에 들자, ‘내가 가

진 아이디어가 가치로 환산되어 돈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다. 각종 공모전에 주목하게 된 이유였다. 그렇게 LX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다. 마침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 많았다. 지역이 가진 역사를 공익적으로 보여 줄 만한 방법을 떠올렸다. 딱히 상을 받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 아이디어가 가진 가치가 궁금했어요. 사실 공모전에 제출하기 전에 주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어쩌면 아이디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지만, 그냥 접기는 아까웠어요.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칭찬이 만든 추진력으로 플랫폼을 구현한다

“심사위원이 열 분이었어요. 예상대로 아홉 분이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대학생인데 그만둘 거잖아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딱 한 분이 ‘이 아이디어는 사업을 떠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칭찬을 받은 거죠. 처음이었어요.”

틀리지 않았다는 응원 한마디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LX에서 상을 받은 아이디어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현하겠다는 결심도 그래서 유지할 수 있었다. 휴학 중이긴 해도 아직 학생이고,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올 하반기를 넘기지 않고 최소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작부터 전국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박물관이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역사를 만나는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친하게 지내는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보니 2,500~3,000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8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원래 같이 하던 팀이 있었는데 데이터 구축 도중에 손목터널 증후군 오고 군대 가고 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다른 팀을 구했으니까 6월 말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만드는 꿈

“우리나라에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평균연령이 60대인데, 역사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관광객을 매칭시켜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일이 많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먹고살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건수가 적었어요.”

이영찬 씨는 낯선 지역에 도착한 관광객과 해당 지역에 사는 지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플랫폼을 꿈꾼다. 일상의 공간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담아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배움을, 협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싶다. 스무 살 이후로는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쓴 적이 없

고, 좋아하는 건 끝없이 파고 싶어하는 건 절대 안 한다는, 스물일곱 살의 청년은 먼 미래에도 돈벌이와 상관없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역사문화 플랫폼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국 곳곳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플랫폼을 실현하고 싶다. 그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you wine

유와인 공간이 지닌 역사를 담은 역사문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유와인은 특별한 날 마시는 와인처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 이영찬 대표는 일상의 역사가 문화와 만나는 순간 공공의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믿는다.

platform service



내일로 미래로

글/노정, 이지선
사진/김일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건강한 물,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 물 관리로 실현한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맑은 물 흐르는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온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다.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계절 여름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찾았다.

스마트 물 관리로 물 복지 실현

물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치수(治水)는 국가 지도자의 통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였고, 수자원 관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댐과 보 등 52개 수자원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국내 홍수 조절 용량의 95%, 전체 용수 공급의 65%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K-water다.

깨끗한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수돗물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K-water는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물 안전과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IT혁명, 기술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K-water는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물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를 통해 수자원 관리부터 물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와 재이용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서 한발 나아가 '인체에 건강한 물'로 물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한 신개념 기능성 수돗물 생산에도 앞장선다. K-water는 인체에 가장 이롭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엄격한 수질관리와 선진 수처리 기술로 가장 좋은 미네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수질연구센터를 운영하며 2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한 꼼꼼한 수질관리 결과 한국은 글로벌 수질 기준 달성률이 99.9%에 이르고 있다.

K-water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은 이제 해외로도 적극 진출하여 파키스탄과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법인이 2025년이면 3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물로 디자인하는 친환경 공간

잘 가꾼 자연은 문화관광 인프라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된다. K-water는 국가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국민 휴식 공간을 구현한다.

전국의 댐, 하천, 아라뱃길 등에 조성된 아름다운 수변 공간은 각종 동식물과 지역 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나

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은 지역 하천과 연계해 친수형 공동체로 구현된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다졌던 산업단지·도시들도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K-water는 송산 그린시티,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등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추어 도시문화에 색깔을 부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친환경 수변복합도시, K-water가 디자인하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청정에너지, 물

사회화는 달과 물의 힘으로 매일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바닷물로 수차발전기를 돌





2



3

려 전기를 만드는 조력발전은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만들지 않아 환경 파괴가 없다. 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한 강수량과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이다. K-water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발생량을 줄여 경제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수력 설비용량의 61%를 점유하는 K-water의 수력발전은 세계 수준의 수력 성능시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력발전은 세계 최대로 발전량이 연간 5억 6,219만KWh에 이른다.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여념이 없는 기후 변화의 시대, K-water는 소수력,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온도차에너지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댐 수면을 활용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솔라투스(SOLATUS)의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오는 2025년까지 9개 댐 및 시화호 수상태양광 개발

- 1 조직문화혁신실 직원들. K-water 조직문화혁신실은 공기업 최초로 설치된 조직문화 전담부서다
- 2 대형 다목적댐, 댐 관리도 K-water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 3 시화조력발전소. K-water가 관리하고 있다
- 4 제10차 K-PUB 열린소통광장 풍경. 조직문화 혁신은 K-water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분야 중 하나
- 5 성남권광역관리단 풍경
- 6 K-water 대전 본사 전경



4

1967년 창립 이래 국가 발전을 이끌며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온 K-water는 더욱 원활한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문화혁신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을 추진하여 매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인 조직 혁신으로 신뢰도 더욱 높아

1967년 창립 이래 국가 발전을 이끌며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온 K-water는 4,496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다. 더욱 원활한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K-water에는 다른 공기업에는 없는 독특한 부서가 존재한다. 바로 조직문화혁신실이다.

거대화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든 공기업은 K-water가 최초였다. K-water는 내부 업무혁신(4Smart)을 통해 외부 경쟁력(Brand Smart)을 제고하고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모델(5Smart)을 정립했다. 회의문화부터 자료 제출 시스템까지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조직 혁신의 결과는 놀라웠다. 조직 내 소통이 활성화되고 현장과 CEO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영진



5

과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구성원의 조직신뢰도 평가인 '신뢰경영지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2016년까지 4년 연속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공공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K-water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 여러 기업과 언론이 K-water를 주목하는 중이다.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K-water가 선도하는 물 종합 서비스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6

“혁신의 최종 목표는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문화혁신실
소진홍 실장

국민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조직문화혁신실을 설치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노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직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조직문화혁신실의 두 주역을 만나 보았다.

궁극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지요.

성공하는 기업의 지속성은 구성원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해 신뢰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최종 목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K-water는 모든 경영활동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행하고, 사회적 공유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조직문화혁신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유연하고 높은 적응력을 가지게 되고, 차별화된 K-water의 경쟁력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과의 접목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LX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같은 SOC 분야 공기업이기 때문에 LX와 K-water는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X와는 지난 2014년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업일정을 공유하고 적기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LX에서 제공하는 지적 기준점 및 좌표값의 데이터를 통해 K-water 수도용지의 경계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데이터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지속성은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반입니다

소진홍 실장과 구자영 부장은 신설된 조직문화혁신실을 이끌면서 K-water가 더욱 효율적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들어 보자.

조직문화혁신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와 회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K-water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업무 몰입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와이(Why) 캠페인'인데요, 직원들이 참여하여 가이드북과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왜”를 묻자는 것인데요, 업무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업무적 소통을 위해서 '와이 캠프'를 진행하고 직접 직원들에게 묻고 답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 '일터의 품격'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에게 관심 있는 이슈를 직접 추천 받아 설문·투표를 해서 회식문화부터 직장예절, 언어사용까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이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질적으로는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문화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결국 사회의 문제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이 권위적인 것이 싫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권위적인 거죠. 술잔 돌리기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잔을 주는 유교문화가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여성이나 육아 문제도 그렇고요. 기업문화라는 게 사회문화의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도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문화혁신실
구자영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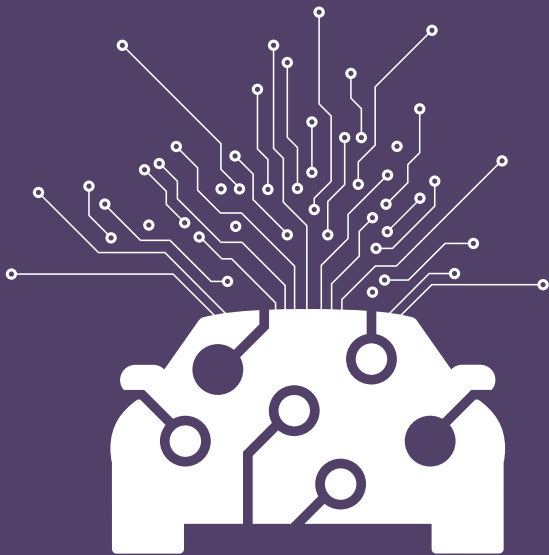
참여를 뒷받침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문화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결국 사회의 문제더라고요

운전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자동차

퇴근 시간. 길은 막히고 배는 고프는데, 내 앞의 차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다. 꽉 막힌 도로 위는 지루하고 피곤하다. 스마트폰을 슬쩍 만지다가 저 앞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다. 아뿔싸, 6만 원짜리 딱지감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이런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추억될 것이다. 한창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언제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미국도로교통 안전청이 제시한 자율주행 단계



업계에서는 2020년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 사고의 90%는 인간 탓

현재 많은 나라에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을 갖춘 자동차, 즉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운전자는 조작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인공지능에게 운전을 맡겨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자율주행자동차가 필요할까? 제일 큰 이유는 안전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90%가 사람 때문이다. 운전자 부주의나 실수(전방 주시 태만, 졸음, 안전거리 미확보, 음주운전)로 인해 매년 약 5,0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다. 사회적 비용도 무려 3조 달러에 달할 정도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대중화하면 이런 인간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막히는 도로를 피해가거나 아예 막히는 원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2020년이면 자율주행자동차 다닌다

현재 기술 구분 척도는 나라와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따르는 편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2단계에서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3단계가 되면 비교적 교통 흐름이 안정적인 고속도



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4단계에 이르면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접어든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서 진화했다. ADAS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운전자에게 알려 준다. 궁극적으로는 운전자를 대체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기존 차량 보조 시스템이 수동형 안전시스템이라면 ADAS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운전정보 제공을 비롯해 차량 사고 예방, 회피 같은 기능을 갖췄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은 이러한 ADSA 수준을 넘어 초기 자율주행이라 할 수 있는 2단계로 넘어왔다.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역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2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TV나 지면 광고를 보면 차선 이탈 경보(LDW)나 속도 및 방향제어기술(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차간 거리나 차선 자동 유지 기술을 갖춘 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년 정도 후면 2~3단계 기술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센서나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검증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2020년쯤에는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옵션도 2019년이면 나올 전망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경험하려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참고로 테슬라는 2016년 10월부터 5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 생산이 가능하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은 누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먼저 각종 ICT 융합기술이 녹아들어야 한다. 예컨대 날씨는 운전의 주요한 변수다. 이를 정확히 알아채는 센서가 발전해야 한다.

보안도 중요하다. 2016년 9월 테슬라의 '모델 S'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를 이용해 중국의 텐센트 킨 시큐리티 연구소에서 해킹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km 떨어진 곳에서 모델 S를 해킹해 잠금장치와 브레이크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보안에 취약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 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문제다. 운전을 하면 봐야 할 게 매우 많다. 복잡한 시내에서 표지판, 신호등, 차선, 보행자, 돌발적인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판단해 움직이거나 멈춰야 한다. 특히 사고 상황 시의 대응을 고려하면 고민해야 할 숙제는 더욱 많다. 정밀한 지도와 차량용 무선통신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서 마지막 판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아직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더라도 당장 자율주행자동차를 길 위에 내놓을 수가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 충돌하면 6명, 오른쪽으로 충돌하면 2명의 사상자를 낸다고 가정할 때 어느 쪽으로 충돌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면허나 보험에 대한 기준과 법규 보완 또한 필수적이다.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

지도를 바꾼 마을

글/노정
사진제공/부안군청, 전남도청

바다를 메워

삶을 가꿔 온 곳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
벽해상전(碧海桑田)

육지에서 4km 떨어진 바다 위의 작은 섬, 계화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섬과 육지 사이를 가르던 바다는 평야가 되었고, 대한민국 지도에는 여의도 10배 면적의 땅이 새로 생겼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계화미는 일조량이 많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맛과 질이 우수한 저공해 쌀로 각광받고 있다.

© 최병량, '계화 일출'



1977년 계화도 간척공사 현장 모습



계화도의 넓은 들녘은 오래도록 이어진 간척사업의 결과물이다

여의도 10배 면적의 땅을 얻다

동진강 하구에 위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면소재지인 창북리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도로 양쪽으로 2,710만 7,438㎡(2,741ha)에 달하는 거대한 평야가 펼쳐진다. 마을 한가운데 야트막하게 올라온 해발 246.2m의 계화산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봉수제가 열리는 마을의 거점이다. 그런데 이 마을은 '계화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동서남북 사위가 광활한 평야인데 왜 섬(島)이라 불리는 것일까?

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화도는 변산반도의 북단에서 4km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닷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났다. 동쪽으로 잡고 있는 육지인 동진면과 계화도 사이 광활한 간석지로 조수에 따라 바닷물이 넘나들고 몇 개의 갯골이 발달해 배가 드나들었다. 계화도로 가는 길은 단 두 가지,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썰물 때 갯벌을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

면적 2.5㎢, 해안선 길이 약 7,000m의 작은 섬에 불과했던 계화도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동진강 하구에서부터 섬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간척사

업을 거쳐 계화도는 육지가 되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아니 벽해상전(碧海桑田)인 셈이다.

섬진강댐과 계화도, 남다른 인연의 시작

계화도 간척은 원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창설한 조선농지개발영단이 1944년부터 공사를 착공했으나, 세계대전 종말기의 경기 악화로 부진하다가 패전을 맞이하면서 중단한 사업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계화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계화도에서 광복 이후 최초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전개됐다. 염습지가 아닌 어장을 대상으로 벌인 최초의 간척사업이기도 하다.

계화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65년에 완공한 섬진강 상류의 옥정리댐 사업이다. 정부는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 2,786세대가 이주·정착할 새로운 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는 계화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밀물은 더이상

밀려들지 않고

쌀물은

아득히 멀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제1방조제 9,254m,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제2방조제 3,556m가 완공되면서 계화도와 육지가 연결되었다. 바다만 메운다고 해서 단박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기지 않는다. 방조제가 완공된 1968년부터 1978년까지, 탈염과 개답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 또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계화도에서 간척공사로 매립된 갯벌이 총 3,896ha, 10여 년 동안 염분을 빼고 개답을 해 농경지로 만들어진 최종 면적은 2,741ha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한 마을 되고

방조제 완공 이후 10여 년 동안 계화도에서 진행된 작업은 탈염과 개답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경지에 물길을 댈 관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길이 67km의 동진강 도수로를 설치하고, 섬진강수력발전소의 방류수를 이동시켜서 저장할 청호저수지도 축조했다.

섬진강댐 수물민들이 이주할 도시형 주택단지도 만들어져 총 241동의 이주민 주택이 들어섰다. 그 결과 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원주민 마을 5개, 그리고 정부로부터 간척 농지를 분양 받아 농사를 짓는 이주민 마을 4개를 합쳐 총 9개 마을이 '계화리'로 묶이게 되었다. 이주민 정착촌을 조성할 당시 쌍용과 대덕, 한일 등 3개 건설회사가 지은 집들은 제각기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주민 마을의 집들은 쌍용집, 대덕집 등으로 불린다.

고향의 물로 '희망의 땅'을 일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계화미를 생산하는 옥토가 되었지만, 이 광활한 간척지가 이주 초기부터 '희망의 땅'이었던 것은 아니다. 산골에서 전답을 일구며 살다가 간척지에 들어와 바닷바람과 염해를 처음 맞닥뜨린 이주민들 중 일부는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계화도를 떠났다. 이주 초창기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염분 때문에 한해 농사를 망치길 여러 번. 그러나 일조량이 많고 신생토양이라 병충해가 적은 덕분에 계화미는 맛도 품질도

우수한 저공해 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시련을 이겨 낸 이주민들은 계화미가 호평을 받으면서 점차 소유농지를 넓혀 갔고, 도시민 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계화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 섬진강댐 수물지구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농민들에게 계화도의 청호저수지에서 쏟아지는 관개용수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청호저수지에 저장되는 섬진강수력발전소의 방류수는 이들 수물민의 집을 집어삼킨 옥정호를 수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화도 이주민들은 도수로를 통해 67km를 달려온 고향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다.

계화도는 방풍림의 반영이 만들어 내는 일출이 장관이라 연초마다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출사지이기도 하다. 땅 위로 솟구친 태양이 긴 띠를 이루며 방풍림을 삼킬 듯 뒤덮으면 계화도의 하루가 시작된다. 밀물이 더 이상 밀려들지 않고, 쌀물은 아득히 멀다. 역척같이 질기게 이어져 온 인간의 삶이 바다를 대신하는 곳, 계화도다.



© 김영준, 계화 호수 5

폐광의 놀라운 변신

세계적 테마파크로 지금 성장 중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였던
광명동굴은 2011년 광명시에서 매입한 후
역사·문화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결합돼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는 연간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폐광의 기적’으로 불린다.

광명동굴 테마파크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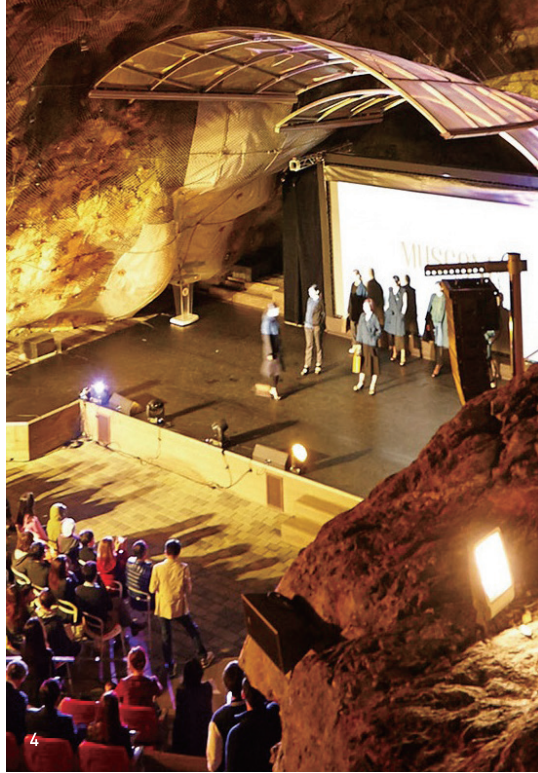
광명동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03년 5월 2일 가학리라는 곳에 시흥 광산이 설립되었다'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설 당시 조선총독부는 광업권침탈을 위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를 압박, '광상조사기관'을 설치하고 금·은 광산을 독점하려 애썼다. 광명동굴 역시 광상조사기관을 앞세워 1912년 이이다 큐이치로라는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으로, 징용을 당했거나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성기 때에는 무려 500여 명의 광부들이 노역을 했다고 할 정도니 광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된다. 이곳에서 채굴된 광물들은 일본으로 보내져 전쟁의 무기가 되었고 해방 전까지 엄청난 양의 광물이 수탈되었다.

60년간 하루 250톤이 넘는 광물이 채굴됐던 광명동굴은 1972년 8월 수해 피해를 입고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광산을 운영하던 동방광업도 도산했다. 이후 2010년까지 40년간 소래포구에서 생산된 새우젓 저장소로 사용되다 2011년도에 들어와 광명시에서 동굴을 매입한다. '동굴 테마파크'의 시작이었다. 첫걸 보관소에서 동굴 관광지로의 변신은 꽤 이례적인 일이라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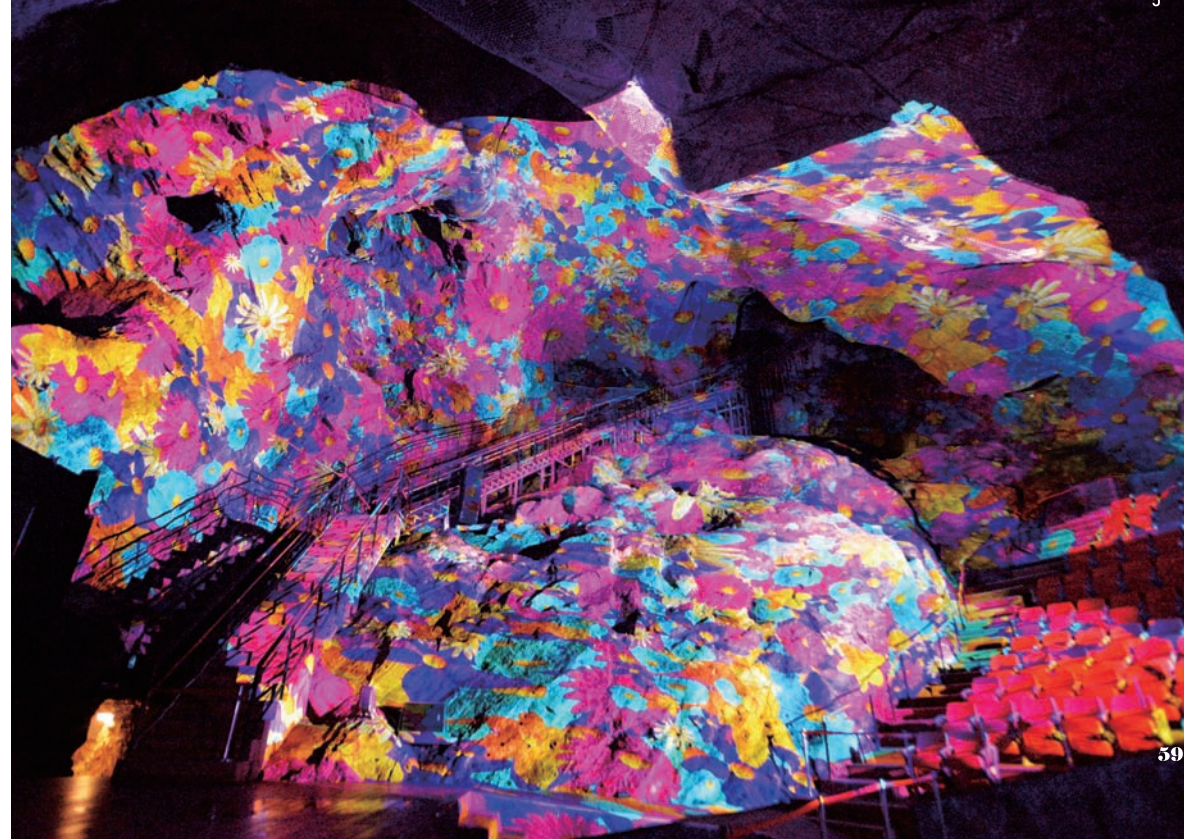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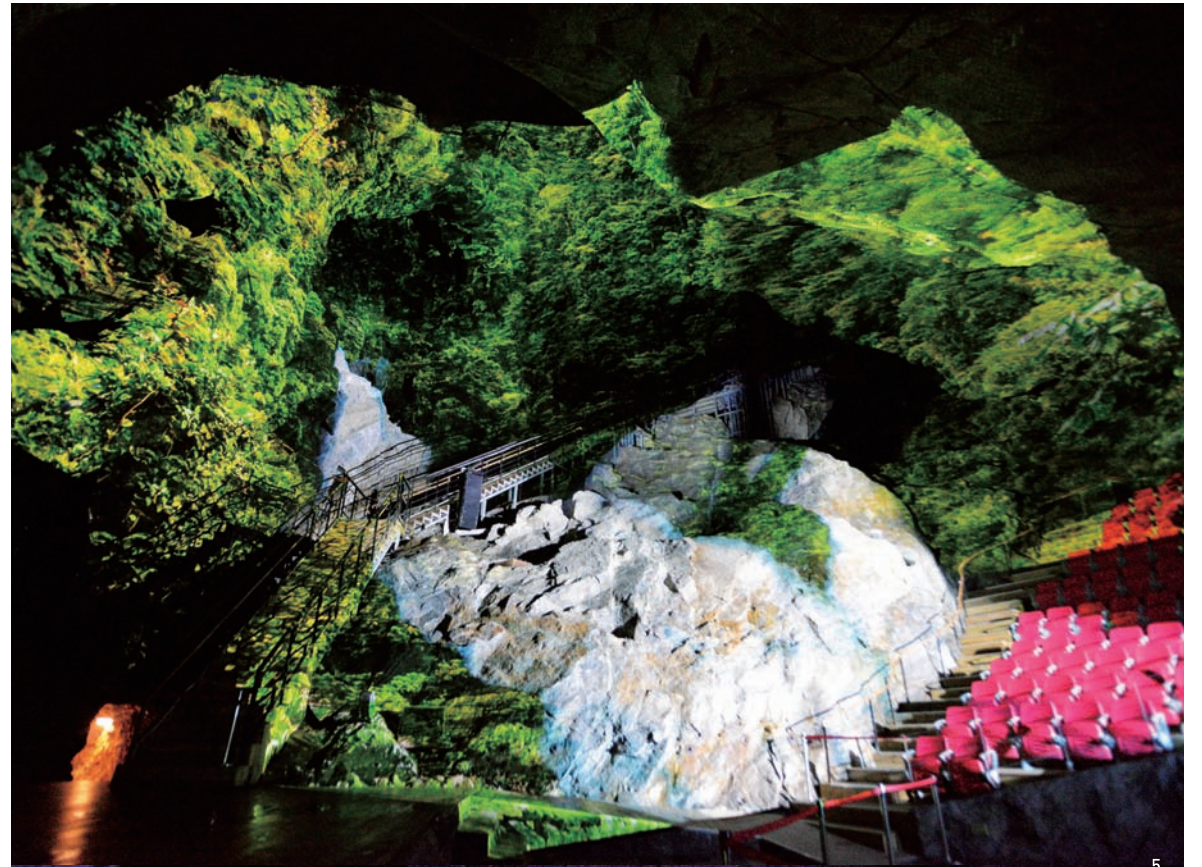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창조 공간으로

총 길이 7.8km, 깊이 275m, 갱도 면적만 42,797㎡에 이르는 광명동굴은 동굴이라는 공간에 문화예술 요소를 결합시켜 동굴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되었다. 동굴 탐사라는 기본 체험 외에 곳곳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려 수많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 1 동굴이라는 공간에 문화 예술 요소를 결합시켜 동굴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되었다
- 2 60년간 하루 250톤이 넘는 광물이 채굴됐던 광명동굴은 1972년 8월 수해 피해를 입고 운영을 중단했다
- 3 폐광 후 새우젓 저장소로 사용되다 2011년 광명시에서 동굴을 매입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 4 세계 최초 동굴 내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은 350석 규모로 각종 공연과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 5 동굴의 외적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실내 공간은 광명동굴테마파크의 개성이자 매력이다



공연장과 영화관도 조성되었다. 특히, 세계 최초 동굴 내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은 350석 규모로 각종 공연과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 공간이다. 공간적 특성 덕분에 문자 그대로 '동굴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그 밖에도 패션쇼, 주얼리 쇼를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질랜드 웨타웍스숍과 손을 잡고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을 열어 축제 기간 동안 판타지 단편영화 본선 진출작을 상영하기도 했다.

젓갈을 보관하던 지하저장고와 갯도는 와인을 저장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와이너리와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각종 공연과 전시, 축제, 와이너리까지. 민족 탄압의 현장에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벽히 재탄생된 것이다.

동굴 개발 성공사례가 되다

2015년 유료화 개장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관객 100만 명, 총 수입 40억 원. 아울러 2016년도까지 일자리 400여 개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광명동굴. 지난해 5월에는 프랑스 의회와 도르도뉴주의회 초청 하에 '광명동굴 성공사례 및 라스코 동굴벽화 광명동굴전의 의미' 등을 발표해 프랑스 정치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재까지도 동굴 사업의 성공 모델로서 여러 국가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10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오는 동안 무수한 유·무형의 자산을 남긴 광명동굴.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을 심분 살리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킴으로써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도 따라 가는 길

글/노정
사진/봉재석
일러스트/심은경

아날로그 감성으로

공간 이동하기

향동 철길과
푸른수목원

서울의 끝, 구로구 오류동에서 향동을 지나는 낡은 철길이 있다. 원래는 물자를 실어 나르는 산업철도였지만 언젠가부터 열차의 기적 소리가 뜰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다. 감성적인 철길 옆에 수목원도 들어서면서 입소문은 더 늘었다. 향동 철길은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 초보 사진가들에게는 실 새 없이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매력적인 출사지이다.



향동철길 가는 길 7호선 천왕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00m 거리에 있다. 걷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오류동역에서 6614번, 마을버스 07번을 타고 푸른수목원 정문, 향동저수지 삼거리에서 하차하면 된다. 주변에 음식점이나 슈퍼가 없으니 물과 간식은 미리 준비하자.



녹슨

철길 위에

피어오르는

공간의 추억



화물열차 멈추고 사람이 걷다

항동 철길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던 시절 서울 오류동역부터 경기도 부천까지 이어 주던 4.5km의 화물철도였다. 국내 최초의 비료회사인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현 KG케미칼)가 부천시 옥길동에 공장을 세우면서 원료와 생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됐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항동 철길을 경기화학선, 혹은 오류화학선이라고도 불렀다. 전성기에는 비료 공장으로 들어가는 화물열차가 하루 열 편도 오갔지만 KG케미칼이 부천 공장을 폐쇄하고 온산으로 이전하면서 일주일에 1~2회만 운행할 정도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철로 부근에 항동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시작되면서 그조차도 중단된 상태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해동 구루구 항동 일대는 공단이 밀집하고 무허가 건물과 판자촌이 즐비했다. 산업화에 떠밀려 푸른 숲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항동에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진다. 이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항동 철길, 그리고 철길 옆에 수목원이 조성되면서다.

공간이동? 서울에서 만나는 기차길

서울지하철 7호선 천왕역을 나와 500미터쯤 걷다 보면 지구촌학교 옆에 철도 건널목이 나란히 서 있다. 2018년 말 항동공공주택지구 공사가 끝나고 화물열차가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건널목은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할 참이다. 다만 마천루 빼곡한 도심 속, 바빠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사이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오도카니 서 있을 뿐이다. 그 철도 건널목 왼편으로 꺾으면 수목원아파트 단지과 나란히 기차길이 시작된다. 낮은 주택가 골목과 기차길이 일렬로 뻗어 있는 모습 역시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낯선 풍경이라 잠시 얼떨떨하다. 눈을 잠시 감은 사이 공간 이동이라도 한 것일까. 반백년 전에 콘크리트 침묵과 긴 쇠막대를 엮으며 닦아 놓았을 오래된 철길은 이제 한참 녹이 슬고 닳았다. 강충강충, 침묵 위를 징검다리 짚듯 깨금 발로 뛰어도 보고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말도 걸어 본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다 보면 한적한 철길이 놀이터처럼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글/이성주

곳곳에서 가상현실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앞으로 발전이나 활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성장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고성능 디바이스가 결합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컴퓨팅 환경을 만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현실세계 파고든 가상현실

게임에서 산업으로 퍼지는 가상현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차세대 거대 시장(Next Big Thing)'으로 꼽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다.

'차세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당장의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주목받는 분야는 게임 정도다. 그러나 곧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교육, 의료, 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군사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가상현실을 적용한 게임 분야는 일찌감치 '대박' 조짐이 보인다. 예컨대 지난해 전 세계 영화산업이 벌어들인 돈은 약 44조 원 규모이다. 올해 모바일 VR·AR 시장 산업 규모는 약 47조 원이다. VR·AR 전체 시장은 2016년 현재 약 113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성장세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기술 선점과 선도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가상현실이 쓰이는 곳은 게임이나 체험실 같은 곳이 대부분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분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 위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다.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비추면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그래픽이 떠 다닌다.

가상현실이 증강현실보다 더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한다. 머리에 쓰는 HMD(Head Mounted Display)는 아직 가상현실의 필수품이다. 어떤 장르를 체험하느냐에 따라 HMD를 비롯해 장갑, 옷, 핸들, 모형 총 등 각종 주변 기기를 갖춰야 한다. 그에 비해 증강현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처럼 카메라가 달린 디스플레이와 GPS, 손가락만 있으면 충분하다. 최근 대학가 주변에서 유행하는 VR방과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Poketmon GO)'를 비교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의 가상현실은 1800년대 무렵에 거론된다.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물건이 등장하는 시기는 1960년대. 이 무렵 나온 '센서라마 시뮬레이터'는 3차원 비디오와 음향, 향기, 바람, 진동을 체험하도록 고안됐다.

1965년에는 오늘날 촉각기술(햅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첫 시도가 성공을 거둔다. 이후 미항공우주국에서 우주비행사 교육용으로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HMD 기반으로 만들고, 다시 이것이 LCD 기반의 디스플레이로 개량되면서 오늘날에 이른다.

침체기가 있었지만 하드웨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1990년대에 들어서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는 다시 활력을 얻었다.



블루오션 두고 글로벌 암투 중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기기를 만드는 업체 오쿨러스를 거액을 주고 인수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에는 오쿨러스를 비롯해 구글, 삼성전자, HTC, 소니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상현실 관련 기기를 선보였다.

슈퍼데이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상현실 기기 중 구글의 카드보드와 데이드림, 삼성전자의 기어 VR 같은 스마트폰 기반 가상현실 체험형 기기가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점차 저가에서 고가 제품으로 넘어갈 것이다. 가상현실 관련 2018년 기준 분야별 소프트웨어 수익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게임이 전체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며 가상현실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영화, 공연, 방송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

장이 15%를 차지했다. 캐릭터나 스토리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9%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행, 건강, 부동산, 교육, 상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이 적용될 전망이다. 즉, 더 진짜 같은 현실감을 원하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고성능 제품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삼성전자, 소니, HTC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관련 제품 개발에 한창이다. 인터넷이 '실시간' 세상을 불러왔다면 가상현실은 아예 물리적인 공간 제약을 없앨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실제와 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가 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네 삶을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글/노정

영화를 통해 보는 가상현실

현실을 앞서간 영화

영화를 따라간 현실

MOVIE TIME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라고들 하지만, 때때로 영화는 현실을 앞서가기도 한다. 영화적 상상에서 영감을 받아 현실에 없던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영화적 상상력이 기술 개발에 영감을 주고 기술이 영화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다.



수많은 영화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가상현실을 이용했다. 가상현실이 기술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오늘날에도 영화 속의 가상현실들은 여전히 미래의 청사진처럼 보인다.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에 개봉해 화제를 모은 뒤 지난 2012년 리메이크된 영화 <토탈리콜>은 가상현실 세계를 일찍이 선보인 작품 중 하나다. 서기 2084년, 채석장 일을 하던 퀘이드는 매일 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성의 일상이 계속 꿈에 나타나자 '리콜'이라는 여행을 찾아간다. 리콜은 여행 기억을 파는 여행사. 고객이 원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 기억을 심어 주는 일종의 가상현실 서비스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영화 <엑시стен즈>(1999)에서 인간



토탈리콜(Total Recall, 2012)
감독 렌 와이즈먼
주연 콜린 파렐, 케이트 베킨세일



의 몸은 현실과 가상 게임의 경계에 놓여 있다. '엑시стен즈'는 영화 속에서 척추에 낸 구멍을 통해 인간의 신경계와 직접 연결해 가상현실에 접속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 게임을 사이에 두고 현실주의자들과 게임의 발명자·지지자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대결이 벌어진다. 영화는 그 대결의 장마져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를 넘나들게 구성해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를 물었던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처럼 관객의 혼란을 부추긴다.

SF 영화사의 획을 그은 <매트릭스>와 비슷한 가상현실 소재를 다룬 데다 하필이면 같은 해에 나오는 바람에 거의 주목받지 못한 영화 <13층>은 우리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가상현실이 만든 세계가 무



엑시стен즈(eXistenZ, 1999)
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주연 제니퍼 제이슨 리, 주드로



한 복제되고 그 세계마다 인류가 창조됨으로써 내가 실재하는 인간인지 한낱 프로그램 속의 전기 일 뿐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대한 지옥을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 진짜 삶, 진짜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데카르트적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으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제 가상현실은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급부상 중이다. 가상성(Virtuality)과 현실성(Actuality)은 철학의 오랜 주제이며 가상현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성찰이 필수적인 공학 분야다.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영화적 상상력이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계속 탄축을 거는 이유다.



13층(The Thirteenth Floor, 1999)
감독 조세프 루스닉
주연 크레이그 비에코, 그레첸 몰



설레기 때문에

더 즐겁다



복권을 사는 건 기어코 돈벼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권 맞으면 뭐하지?'라는 즐거움을 사는 것이다. 휴가도 그렇지 않을까? 휴가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휴가 기간을 잡고, 여행지를 물색하고, 짐을 싸는 준비 기간이 더 즐거울 때도 많다. <땅과 사람들> 독자들이 이 즐거운 시간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지 추천했다.



휴가를 준비하며 듣는 음악들

- ▶ 스위트소로우 - 괜찮아 떠나
- ▶ Beach Boys - Kokomo
- ▶ 최성원 - 제주도 푸른 밤
- ▶ George Ezra - Listen to the man
- ▶ 조용필 - 여행을 떠나요
- ▶ G. Bizet - Carmen 'Votre toast'

설렘 반 망설임 반, 결심이 필요하다면

남들이 다 가니까, 날짜를 정했으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일터에 일이 많아서' 혹은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아니면 '귀찮아서' 휴가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은 의외로 많다. 등 떠밀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 스위트소로우의 '괜찮아 떠나'를 들어보자. "어디든 좋아. 그래 멋진 날이 될 거야. 걱정 말라고." 경쾌한 멜로디에 실린 가사를 듣고 있으면 '떠남'의 욕망이 꿈틀댈 것이다.

최성원이 부르는 '제주도 푸른 밤'도 좋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반드시 제주도일 필요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하는 가사에 고개만 고덕일 수 있다면 가까운 근교 나들이도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다. 반복돼 나오는 '둘'에 집착해서 망설임 필요도 없다. 혼자여도, 둘이어도 좋다. 나른한 목소리로 "떠나요~" 하고 말을 거는 노래가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만들어 줄 테니까.

휴가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결심을 돕는 방법이다. 푸른 바다와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가롭게 누워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뻘한 모습은 어떤가. 배경음악으로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Kokomo)'를 골라보자.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내일부터 휴가 시작! 떠날 준비 다 됐어요~

결심을 마치고 어떤 옷을 챙길까 고민된다면 영국 뮤지션 조지 이즈라의 '리슨 투 더 맨(Listen to the man)'을 참고하자. 배우 이안 맥켈런이 출연한 뮤직 비디오가 화제를 모았는데, 영상 속 맥켈런의 의상이 휴가 패션의 교본이다. 핑크색 리본이 달린 여름용 모자에 화려한 프린팅 티셔츠, 흰 바지. 출근할 땐 튀지만 휴가지에선 성별 구분 없이 멋진 옷차림이다. 스커트를 선호한다면 셔츠와 바지를 프린트 원피스로 응용해도 좋다.

기분이 들뜨고 즐거우면 콧노래 한 자락이 필수. 이럴 땐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온 '투우사의 노래'가 제격이다. 유산균 음료의 광고음악으로 쓰여서 더 유명해진 이 곡은 콧노래로 부르는 "랄라랄라라라라라라~"로 하든 흥이 넘친다. 단, 한번 입에 붙으면 종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자! 이제 출발의 순간이다. 더 이상 들쭉이는 마음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가장 많은 독자의 추천을 받은 곡. 차에 시동을 걸고 혹은 버스나 기차, 아니면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들어 보자.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바다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동 중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교통방송을 들어야겠지만, 출발할 땐 좀 신나야 하지 않겠나.

※ 음악을 추천해 주신 김기서, 김혜선, 박리다, 박연심, 백종신, 송나영, 신승남, 심재호, 오덕균, 이승아 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는 온에어

글/최우진
사진협조/부산진구청 창조도시과

청춘의 고민과 사랑을 담은 드라마 <쌈, 마이웨이>가 인기다. 덩달아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된 부산 범천동 호천마을에도 사람들이 북적인다. 벽화를 가득 품은 골목골목에는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기를 만든다.

드라마 <쌈, 마이웨이>와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알록달록 빛나는

청춘의 배경

색으로 그려 낸 청춘의 한때

특정한 나이를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청춘은 어떤 색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 입시니, 스펙이니, 취업이니 하는 문제에 치여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하고 조로해 버리는 것이 요즘의 청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쩌면 청춘을 규정하는 색깔은 검정색이나 짙은 회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전히 청춘이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빛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물론 마냥 총천연색이라 우길 수는 없다. 한 시간 짝 채워 일한 시급으로 할인가격의 햄버거 세트 하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청춘이 마냥 아름답다는 노래는 비현실적이다. 청춘을 예찬하게 마련인 청춘 드라마, 영화들이 빠진 고민이다. 입체적 고민과 현실적 한계를 담되 한없이 우울하지 않을 것.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쌈, 마이웨이>도 그렇다. 소위 '흙수저'라고 표현되는 평범한 청

춘들의 좌충우돌 생존기에 로맨스를 더한 이 드라마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고민을 색깔 가득한 영상 안에 담아 상찬을 받고 있다. 주요한 배경이 된 동네는 부산진구의 호천마을. 예쁘게 색을 입힌 주택들이 가득한 곳이다.

색색의 추억으로 남는 마을 풍경

마을 주변의 산세가 험하고 삼림이 울창해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마을의 남동쪽 증산에서 발원한 내가 마을 가운데를 지나 호계천 혹은 호천이라 불렀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호천마을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며 마을이 노인 중심으로 재편되자 2013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일으키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환경 가꾸기를 통해 오래된 주택들이 알록달록 고운 빛을 입고 다시 태어

났다. 이국적 풍경을 꿈꿀 때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감천마을'만큼 고위진 풍경 위로 동화적 벽화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 2014년 벽화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벽마다 자리한 호랑이들의 모습은 마을의 기원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과 동화 속 문구들을 채워 넣은 벽화는 낯은 주택이었던 호천마을을 동화적 감성이 공존하는 마을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촬영지로 전파를 타면서 요즘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말이면 사진을 찍기 위해 촬영지를 찾는 이들로 골목이 북적일 정도다.

관광객들은 호천마을의 알록달록한 풍경을 앵글 안에 담으며 지나간 청춘을 추억하고, 다시 사진 안에 추억을 남긴다. 사라져 가는 공동체를 다시 잇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던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셈이다.



- 1 호천마을의 벽화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렸다
- 2 노령화 진행으로 활기를 잃어 가던 마을은 2013년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 3 호천마을의 야경이 아름답다
- 4 벽화 속의 호랑이들은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
- 5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주요 배경인 '남알바'. 추억을 남기기 위해 호천마을을 찾은 이들이 사진을 남기는 곳이다



Rafting

격렬하고
시원한
물놀이

래프팅

우리나라 국토는 산이 70%다. 그래서인지 등산인구도 많다. 그러나 산이 주는 재미는 등산뿐만이 아니다. 계곡을 따라 급류를 타며 즐기는 레포츠 래프팅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이라야 만끽할 수 있다.

함께하는 물벼락 속 쌓이는 즐거움

래프팅은 보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물길을 가다가 내리막 코스에서 물벼락을 맞는다는 점에서는 일면 놀이공원의 '플룸라이드'와 비슷하다. 플룸라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보트가 다르다는 것인데 래프팅용 보트는 고무, 폴리염화비닐(PVC), 하이펄론 등의 재질로 만들며 3~4인용부터 10인용, 12인용 등이 있다. 또한 노는 폴리프로필렌 혹은 알루미늄 샤프트로 만들어 물살을 헤치고 나갈 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련회나 직장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래프팅을 넣는 이유는 협동심을 시험하거나 기르는데 좋은 종목이기 때문이다. 10명이 보트 하나에 타고 노를 저어 급류를 헤쳐 나가다 보면 없던 동지애도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 협동심 기르기에 이만한 종목이 또 없다.

원시시대부터 시작했다

래프팅의 래프트(Raf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1번 뜻에 쓰여 있다. "뗏목." 나무 동치 여러 개를 널쿨 등으로 묶어 물 위에 띄워서 강을 건넌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어느 조상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그마저도 꽤 고난이었을 테다. 어느 운 좋은 날 뗏목과 사람 모두 무사했을 때 느꼈던 스릴이 유전자에 각인되었기 때문일까? 현재 래프팅은 전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뗏목은 보다 안전한 형태의 탈것으로 진화했다. 지금 같은 보트가 보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군용 고무보트 이후다. 1960~70년대 북미, 특히 그랜드캐니언 여행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오늘날의 인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이제는 초등학교도 즐길 수 있다.



래 프 팅
즐 기 기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래프팅은 패들 래프팅(Paddle Rafting)으로 바위 등의 장애물이 많고 수량 및 수위가 일정치 않은 지형에서 가이드가 보트 뒤에 앉아 패들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고 탑승한 사람이 가이드 지시에 따라 노를 젓는 것을 말한다. 협곡이나 강이 넓은 지형에서 고정된 긴 노를 조정하는 오어 보트 래프팅(Oar Boat Rafting)은 해외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래프팅이 유명한 곳으로는 동강, 한탄강, 조양강, 내린천, 영월 등이 있다. 이미 코스가 잘 개발된 곳이라 별다른 준비 없이도 래프팅 관련 업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며 계곡이 워낙 많아 마음만 먹으면 래프팅 코스로 사용할 수 있다. 올 여름, 가족 혹은 친구와 선택한 곳이 계곡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신나게 래프팅을 즐기고 어느 계곡에나 있는 뗏목숙을 선택한다면 제대로 여름을 즐겼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와 준비운동, 그리고 진짜 전문가의 조언을 잊지 말자.

해피 투게더

글/정별님
 사진제공/신촌물총축제,
 (재)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제주시청,
 포항문화재단 축제운영팀

물과 함께 빛과 함께

7월을 즐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달아오른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축제들로 가득 채워진다.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펼쳐지는 신촌물총축제를 시작으로 화천, 제주, 포항 등 강과 바다를 무대로 한 다양한 축제를 만나 보자.

매년 이맘때면 신촌 일대를 물바다로 만드는 '신촌물총축제'는 '물총'이라는 아이টে으로 지역과 인종, 언어, 나이를 초월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이색 축제다. 올해는 '신촌에 불시착한 우주선'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연세로 일대가 외계인과 우주선으로 꾸며질 예정. 물놀이 외에도 버블파티와 DJ 공연이 저녁까지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보다 역동적인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화천 쪽배 축제'에 가 보는 것은 어떨까? 화천군 봉어섬 일대에서 2주간 진행되는 쪽배축제에서는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 범퍼보트 등 다이나믹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북한강을 넘나드는 '하늘가르기(짚라인)' 또한 쪽배축



제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체험거리. 행사장 주변으로는 물놀이장과 키즈존, 생태체험장도 꾸며져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주와 포항의 지역 축제에 둘러 보는 것도 좋겠다.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는 제주 바다를 무대로 수준 높은 대중예술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해 무대를 빛낸다. 26일부터 7월 말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는 거리 공연과, 불빛 퍼레이드 등을 즐길 수 있다. 축제의 백미인 '뮤직불꽃쇼'는 형산강과 영일만 해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만 발의 불꽃이 펼쳐져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는데, 불꽃쇼는 28일, 29일, 30일 단 3일만 감상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자.



- 01 신촌물총축제 2017**
 일시 7월 8일(토)~7월 9일(일)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8-63, 신촌 연세로 일대
 문의 ☎ 1522-9223
- 02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2017**
 일시 7월 29일(토)~8월 13일(일)
 위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2-54 봉어섬 일원
 문의 ☎ 1688-3005
- 03 2017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일시 7월 21일(금)~8월 초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 해변공연장
 문의 ☎ 064-728-2711~5
- 04 포항국제불빛축제 2017**
 일시 7월 26일(수)~7월 30일(일)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95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문의 ☎ 054-289-7851~3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

글/박경석 경역학 박사,
도서출판 드림은 대표,
해비타트 자문·운영위원
사진/봉재석

어린 시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어른들의 농담을 들으며 자랐다. 다리를 소재로 삼은 음악을 들으며 성장했고, 이제 매일 다리를 건너 출근한다. 긴 강을 건너다 보면,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다.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학창시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곡이 있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좋아서 듣다 보니 “피곤에 지쳐 작게만 느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할 때, 내가 곁에서 눈물을 닦아 줄게요” 하는 가사도 좋았다. “힘난한 시절이 찾아와 친구조차 없을 때, 힘난한 물살 위의 다리처럼 내가 받쳐 줄게요” 하는 부분에선 어쩐지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었다.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기 쉬운 사춘기 감성에 유독 와 닿았나 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사춘기는 그런 시절이었다. 세상의 불합리나 정의가 눈에 들어오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막연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시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도 없다고 믿게 되는 시절.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이야기들이 사무치게 들리고 새삼스럽게 귀에 거슬리는 인생의 어떤 때. 그 시절 동네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보거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소설들을 읽어 치우는 것은 답답함을 푸는 방법 중 하나였다. 별 다를 것 없는 책 한 권이 주었던 재미가 무시로 일어나는 내면의 화를 잠재웠다. 그래도 안 되면 친구와 혹은 어머니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를 나눴다. 운 좋게도 나에게 시답잖은 고민을 나눌 친구가 있었고, 아들의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 주는 어머니가 계셨다. 온전히 고립되었다고 느낄 만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힘한 세상의 다리’처럼 생활을 지지해 준 이들이 있었던 덕분이다.

힘난한
물살 같은

세상을
버티 줄 곳?

다리

오늘 하루 어땠어?



- 1 마포대교 중간에는 '한번만 더 등상' 이 있다
- 2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 3 마포대교가 시작되는 지점, 난간의 장식물에 낙서가 빼곡하다

우울감과 우울증 사이, 노력은 유효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운이 좋았구나 싶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는 법이다. 물론 이제는 아무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외로움은 결혼을 해도, 가족이 있어도 찾아온다.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외로우니 외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다. 나에겐 별것 아닌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중단하고 싶은 고통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고립감을 경험한다. 그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면 우울에 빠진다. 이 우울감이 우울증이라는 병증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또 오랜 시

간과 요인이 작용을 하지만, 고립감과 우울은 우울증이라는 병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나면 전문의의 치료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치하다 보면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자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가끔 험한 세상에 건널 다리 하나 없이 동떨어져진 듯 느끼는 이들에게 이 노력은 유효한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거품된 마포대교의 꿈

일단 죽음을 떠올린 사람들은 자신을 추스를 여력이 없다. 좌절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절박함에



험한 세상에

건널 다리 하나 없는 이들도 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시답잖은 말로 위로를 하려고 들어 봐야 더한 고립감을 안겨 줄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살률이 높아 '자살의 명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만 마포대교 난간의 문구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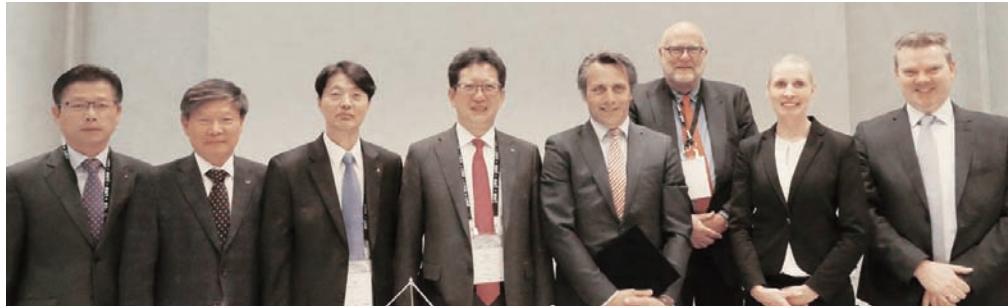
서울 시내 주요 한강 다리 중 투신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뒤, 2012년 9월 서울시는 삼성생명, 제일기획과 함께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바람 참 좋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구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등의 문구가 난간에 붙었고, 교각 곳곳에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구들은 이제 폐기 직

전이다. 사람이 지날 때마다 들어오던 센서 등은 삼성생명과 계약종료를 기점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운영이 중단됐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은 문구들은 가벼운 우울감을 가진 이들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겠다'는 마포대교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애초에 물거품을 노정할 노력이었다. 자살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지 않는 한 마포대교가 아니라 어느 다리가 '자살의 명소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마포대교는 지난 9월 난간의 높이를 높였다. 문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다리는 점점 튼튼해지는데 어째서 죽음은 이리도 가까운가.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LX와 FIG한국대표단, '국제측량사연맹 상임위' 참석

선진 국토정보기술 세계에 알렸다



LX와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FIG 한국대표단이 국내 선진 국토정보기술을 세계 각국의 측량사들에게 소개했다.

LX와 한국대표단은 5월 29일부터 5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측량사연맹(FIG)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비콘 기준점 활용」 등 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관련 사업을 알리기 위한 'LX 홍보관'을 운영했다. '미래 세계의 측량-디지털화에서 증강현실까지 (Surveying the world of tomorrow-From digitalization to augmented reality)'를 주제로 29일 개막한 이번 회의는 총회와 분과별 세션 논문 발표, 한국-네덜란드 간 MOU 체결, 젊은 측량사 워크숍(YSN), 증강현실 체험을 위한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로 꾸러졌다.

이번 FIG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박명식 사장 등 10여 명은 전 세계 80개국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관리와 공간정보 분야 관련 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대표단에 포함된 서울시립대학교도 2편의 연구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국가측량기관(더치 카다스터)과 양해각서(MOU) 체결, 핀란드 지적청 관계자와 미팅, 개발도상국 토지행정 관계자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네덜란드 국가측량기관과는 지적·토지행정·공간정보 노하우 교류와 활성화 방안 등 양국 간 해외 진출 및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시장 내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3D측량 기술력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상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을 소개하는 'LX 홍보 부스'가 운영돼 각국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장 김택진)는 우리나라 측량 및 지적정보기술의 위상 제고와 국제 사회 공헌을 주제로 2022년 FIG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을 방문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FIG는 1978년 파리에서 유럽 7개국의 측량사위원회로 창립돼 회원국 간 상호협력과 측량기술교육,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호국영령 희생 추모



LX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본사 임직원 4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사 임원 및 실·처장과 보훈대상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에서 헌화 분향을 했다.

박명식 사장은 이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인보의식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호국의 숨결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청렴 생태계 조성 위한 캠페인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LX가 전북지역 청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31일 전주역 광장과 한옥마을에서 본사와 LX공간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북 청렴클러스터 소속인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기안전공사 등 직원 50여 명이 모여 시민들을 상대로 청렴 홍보물과 전단지 등을 나누어 주는 '청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6월 2일 윤리의 날을 맞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대표 유한범)에서 주관하는 '공익신



고 앱 설치하고 영화 보러 가자!'라는 앱 캠페인 이벤트의 전단 홍보와 함께 LX의 청렴의지가 담긴 부채와 리플릿을 배포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반부패 청렴 마인드를 전파했다.

이문수 감사는 "이번 행사가 전북지역 청렴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전북지역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사 40주년 기념 LX 감성 음악회 개최

한여름 밤을 수놓을 'LX 감성 음악회'가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을 찾아간다.

LX는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에 위치한 본사 운동장에서 감성 음악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7월 1일 창사 40주년을 맞는 LX는 국악의 고장인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시립국악단과 무대를 압도하는 국악인 박애리와 가수 팝팝현준, 4인조 여성 퓨전국악그룹 '하나연' 등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색다른 '동행'을 준비한다.

박명식 사장은 "국악과 힙합의 조화라는 색다른 경험을 지역 주민께 선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금 개최 성금 전달

LX가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은다.

LX는 6월 2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서울송파사무소(사무총장 여형구)를 찾아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명식 사장은 "온 국민의 하나 된 열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형구 사무총장은 "LX의 자발적인 성금 기탁에 감사하며, 완벽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은 2018년 2월 9~25일, 패럴림픽은 같은 해 3월 9~18일이다.

1사1촌 혁신도시 이전기관 봉사활동

LX가 전북혁신도시 이웃기관과 함께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희망 불어넣기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지난 5월 29일 전북 김제시 거야마을(이장 김진효)을 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와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무료 법률상담 또한 진행했다. 합동봉사단원 60여 명은 이날 오디 따기와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일손을 돕고, 마을 가구와 회관에서 사용할 주방기구(50점)를 전달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마을 주민들의 생활 속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권기중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농가의 일손을 더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전북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회 한국국토정보대상 연구과제 공모 실시

LX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와 지식 발굴을 위한 '제2회 한국국토정보대상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LX는 6월 30일까지 드론·IoT·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력 기술들을 활용한 공간정보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8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5편의 최종 입상작을 선정한다.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이 포상으로 제공된다.

독자와 함께

〈땅과 사람들〉 구독 및 배송 변경 안내

〈땅과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합니다. 〈땅과 사람들〉은 더 많은 독자와 만나기 위해 구독 및 배송 방법을 변경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경 내용

1. 〈땅과 사람들〉 구독 신청 시 신청한 달로부터 1년간 무료 배포합니다. (2017년 6월 구독 신청자부터 적용)
2. 기존에 구독하던 독자 여러분 중 지속적인 구독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우편엽서 혹은 이메일(lx0102@lx.or.kr)로 구독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지속을 원하는 경우 구독 의사와 함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적어 주세요.
3. 지속 구독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2018년 5월호부터 〈땅과 사람들〉 발송이 중단됩니다.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지속적인 구독을 원하는 독자 여러분은 반드시 우편엽서나 이메일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땅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호 당첨자

강길우 인천 남동구	서정은 전남 순천시
구윤정 대구 달서구	심재호 울산 북구
김기서 서울 영등포구	장미선 경기 수원시
박숙희 강원 원주시	장인선 대전 서구
박연심 전남 영광군	

애독자 이벤트

조효순 전남 곡성군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연락처

주소

2017. 07. vol. 162

땅과 사람들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 2. 1~2019. 1. 31
전주우체국 승인
제40183호

받는 사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처
〈땅과 사람들〉 담당자 앞

5 4 8 7 0

독자 참여 방법 안내

구독 신청 안내

〈땅과 사람들〉은 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홈페이지(www.lx.or.kr)에서 좌측의 소식 ⇒ 웹진 ⇒ 땅과 사람들 ⇒ 땅과 사람들 구독 신청 순서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에서 도와드립니다.
전화 063-906-5108 / 이메일 lx0102@lx.or.kr

애독자 이벤트

지금까지 구독한 〈땅과 사람들〉을 모아 사진을 찍고 이메일 lx0102@lx.or.kr로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땅과 사람들〉에 참여해 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꼼꼼하게 읽고 독자엽서에 의견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책을 만듭니다.
2. 함께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보내 주세요. 8월호는 '더위 먹은 뇌를 깨울 때 듣고 싶은 곡'입니다.

자녀호 장담

- 1 3%
- 2 사물인터넷(IoT)

독자 퀴즈

- 1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하천의 총 연장은 몇 m일까요?
- 2 동서남북 사위가 광활한 평야임에도 여전히 '○○도(섬)'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간척사업을 통해 드넓은 평야가 만들어진 이곳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점, <땅과 사람들>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 주세요.

'더위 먹은 뇌를 깨울 때 듣고 싶은 곡' 플레이리스트를 보내 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방대한 음악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7. 07. vol. 162

땅과 사람들

독자퀴즈 정답

1

2

구독 신청 구독 지속 주소 변경

이름

신규 · 변경 주소

정기구독 신청 안내

TEL. 063-906-5108

E-mail. lx0102@lx.or.kr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목적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외보 <땅과 사람들> 게재, 사외보 <땅과 사람들> 당첨자 상품권 발송

• 항목 : 이름, 주소

• 기간 :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게재, 사외보 <땅과 사람들> 및 당첨자 상품권 발송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줄자

유연함을 배우다

필력거리는 원단, 곡면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

공사 현장의 길고 짧은 거리를 잽니다.

조약돌만 한 작은 크기이지만 그 안의 자를 꺼내어 펴면

사람 키의 곱절이 넘는 길이도 쉽게 측정합니다.

내구성이 높으면서도 쉽게 구부러지는 재질 덕분에

영키지 않게 도르륵 말려서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1962년 한 미국인이 최초로 만든 2m 쇠줄자는

단단한 재질의 막대 자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주머니칼과 열쇠고리 등의 발명에도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유연한 사고, 구부릴 줄 아는 부드러움이 지닌 힘을

오늘 줄자를 보며 배웁니다.

기다란 철로만 덩그러니 달리던 향동 철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독특한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 1 지역 예술가와 주민의 노력으로 향동 철길은 걷는 재미가 있는 기차길로 다시 태어났다
- 2 철길 바닥에 예쁜 문구들이 새겨졌다
- 3 길 곳곳에서 흥미로운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
- 4 사색과 공감을 위해 나선 길은 사진을 찍기에도 그만이다
- 5 향동저수지와 어우러진 푸른수목원도 향동 철길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다

사색과 공감 그리고 출사를 부른다

향동 철길은 한적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이제 천왕산 사이로 들어선다. 봄에는 제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향동 철길은 계절마다 다른 꽃이 지천을 수놓는다. 이날 취재진을 반긴 꽃은 초여름 녹음을 발갈게 물들인 접시꽃. 생명력 짙긴 들꽃은 침목과 쇠막대 사이사이, 자갈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이 꽃망울을 터뜨린다.

기다란 철로만 덩그러니 달리던 향동 철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독특한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구로 주민들의 모임 '구로향아리'가 '향동 철길 아트레일'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곳곳에 재미난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철길을 따라 고물로 만든 강통로봇과 벽화, 그리고 재미있는 포토존이 들어섰다. 침목 위에 기차길이니 간이역도 세웠다. 남으로 해남, 북으로는 개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사뭇 진지하다. 철길 바닥에 새겨 넣은 감성적인 문구들은 '힐링'의 기운이 가득하다.

멋진 사진 찍고 싶은 욕심을 한가득 품고 찾아가지만, 카메라 렌즈보다 마음에 담아 갈 생각거리가 더 많은 출사자를 간혹 만난다. 향동 철길이 그렇다. 앞서 가는 젊은 연인들은 손에 손 꼭 잡고 연신 셔터를 눌러 댄다. 기차길 따라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



기차길 옆 수목원

2017년 현재 향동 철길 나들이는 푸른수목원 뒤편까지만 가능하다. 2018년 11월까지 향동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 공사장 가림막 앞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 아쉬움을 달래 주는 곳이 바로 옆에 세워진 푸른수목원이다.

푸른수목원은 2013년에 서울시에서 만든 최초의 시립수목원이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현재진행형의 공간이다. 숲은 그늘을 드리울 정도로 울창하지 않고, 곳곳의 식물도 성숙한 잎을 자랑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향동저수지와 어울려 푸른뜨락, 내음두루, 한울터, 돌티나

라 등 2,10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25개 테마 정원을 감상할 수 있고 북카페와 숲교육센터 등 생태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향동저수지와 어우러진 호젓한 갈대숲 사이로 거닐다 보면 초록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된다.

푸른수목원은 천왕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근교 생태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한다. 수목원과 향동철길의 짧은 산책이 아쉽다면 이곳 숲길을 걸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수목원 뒷길은 구로 올레길과 연계되어 제법 큰 숲길로 이어져서 등산도 할 수 있지만 걷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철길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